

Artist's Statement

김병진

나의 작품은 인간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각적 실험으로, 수직성과 수평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 관계의 구조를 조명한다. 수직성이 권력과 위계를, 수평성이 평등과 연대를 상징하는 이 개념적 구도는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톨을 제공한다. 작품들은 이러한 개념을 조형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교차, 충돌, 조화의 순간을 포착한다. 차가운 금속성과 날카로운 직선이 지배하는 수직적 요소는 권력 구조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반면, 부드러운 곡선과 대비되는 수평적 요소는 평등, 연대, 그리고 인간 본연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며, 우리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는 대조적인 요소들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며 관계의 역동성을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전시 공간 자체는 이러한 개념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높낮이의 대비,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 재료와 형태의 조합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시각적, 공간적으로 형상화 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수직성과 수평성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전시는 단순한 미적 경험을 넘어, 관객에게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계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으며, 평등을 얼마나 추구하는가? 권력과 위계의 구조속에서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그리고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각 작품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작가적 해석을 담고 있다. 어떤 작품은 명확한 위계적 구조를 통해 긴장과 갈등을 강조하고, 다른 작품은 유기적인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전시는 관계의 본질을 단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성을 체험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관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방식과 구조를 돌아보게 된다. 수직성과 수평성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며, 변화의 가능성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복잡성을 체험하면서 감정적 공감과 지적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결국, 이 전시는 차이와 교감이 공존하는 인간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하며, 관객에게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서 관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보다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로서 공존하는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다 깊이 있는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